

한전 나주 이전, 빨라야 2014년

착공도 안한 청사 공사 기간만 36개월…연기 불가피
14개 기관도 차질…“내년까지 이전” 정부 공언 ‘빈말’

정부가 줄곧 공언했던 ‘2012년 혁신도시 준공’ 약속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들이 내부적으로 본사 이전 시점을 2012년 말에서 2014년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8일 한전과 계열사,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한전과 한전KPS, 한전KDN 등 나주에 조성 중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본사를 이전하는 한전과 계열사들은 나주 이전 시기를 당초 국토해양부가 정해준 2012년 말에서 2014년 초로 연기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탓인지 이를 회사는 이전 연기를 공식화하지는 않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22일 신사옥 건립공

사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를 선정 중이다. 한전은 공개적으로는 국토부가 정해준 대로 2012년 말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2014년 초에나 입주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 관계자는 “사옥 건축 공정 등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012년 준공은 불가능하다”면서 “빨라야 2014년이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전 신사옥 건립 입찰공고를 보면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6개월간이다. 오는 8월23일 기본설계와 기술제안서를 접수받아 심사 등을 거치면 9월께나 착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착공해 공사기간 36개월을 적용하면 준공기일은 2014년 9월이 된

다. 공기를 아무리 단축한다고 해도 2012년은 불가능하다는 계산이다.

계열사인 한전KPS, 한전KDN도 마찬가지다. 건설비가 각각 1164억원, 971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회사들은 아직 입찰공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1600억원 규모의 남악 전남도청 청사 건립에 3년여 기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하면 공기가 절대 부족한 셈이다.

나주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건립 공사 중 가장 진척이 빠른 우정사업

정보센터를 제외하고 한전 등 15개 기관 모두 내년 말 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지난 4월25일 착공한 254억원 규모의 우정사업정보센터가 공사기간이 630일(21개월)로 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아직까지 건축허가조차 내지 않

은 전력거래소(건축비 743억원), 한국농어촌공사(908억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374억원), 농업연수원(255억원), 농수산물유통공사(457억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419억원), 전파연구소(309억원), 한국인터넷진흥원(498억원), 한국콘텐츠진흥원(334억원), 사학연금공단(305억원) 등의 내년 말 이전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전남지역 한 건설사 대표는 “300억 원대 이상 건축공사의 경우 2년 이상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공기 절대 부족으로 내년 말까지 청사 건축공사도 마무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이전 연기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국토부로부터 ‘2012년 말 이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려면 국토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본사 이전 연기를 공식화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도전! 어르신 골든벨 8일 오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개원 2주년을 기념해 열린 ‘도전! 어르신 골든벨’에 참가한 노인들이 환한 표정으로 도화지에 정답을 적어 들어올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020년까지 LED조명 전국 60%·공공기관 100%로

광주 LED산업 제2도약

정부 활성화 방안…예산 80억→2000억으로

드)밸리 등을 첨단산단과 진곡산단에 조성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광산업 세계 톱(TOP) 3로 도약하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 목표대로 된다면 2020년에는 50만㎾급 화력발전소 7~8개를 대체하는 에너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주에서 생산된 LED제품의 해외수출이 잇따르는 등 품질과 경쟁력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정부의 LED조명 확대정책은 광주 LED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간 건물과 주택에는 LED 등 고효율 조명 의무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LED조명을 포함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시 세제공제 혜택을 지금의 10%에서 30%로 높일 방침이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조명광고간판, 양계장 등의 경우 LED조명으로 교체 시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4대강, 세종시, 학교, 산업단지 등 대단위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공공부문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 등 도로·교

통시설 조명을 LED로 바꿔나갈 계

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의지와 예산 확보 노력을 감안해 LED조명 시범도시를 선정, ‘LED조명 특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올해 80억 원에 그친 공공기관 LED조명 보

급사업 예산을 2년간 2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8일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으로 녹색 LED조명 보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식경제부는 LED조명 보급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2012~2013년 대규모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강, 세종시, 학교, 산업단지 등 대단

위 보급 프로젝트를 발굴, 공공부

문이 앞장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통, 가로등, 터널 등 도로·교

통시설 조명을 LED로 바꿔나갈 계

2700억, 한전 신사옥 공사 잡아라

올 광주·전남 최대 건축공사…현대·대우·포스코 컨소시엄 도전장

지역의무도급 40%

올해 광주·전남지역 건축공사 중 최대 규모인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 공사가 3파전으로 전개된다.

8일 한전과 건설업체에 따르면 한전 신사옥 건립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마감한 결과,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도전장을 냈다.

광주일보 경제 아카데미 순천 특장

오늘 오후 4시 순천시청 별관 대회의실

한국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서울)이 지분 22%를 갖고 금호산업(21.5%·전남), GS건설(19%·서울), 대림산업(19%·서울), 혜림건설(18.5%·광주)과 손을 잡았다.

대우건설(35%·서울)은 삼성물산 건설부문(25%·서울), 우미건설(14%·전남), 동광건설(13%·전남), 진양건설(13%·전남) 등과 짹을 이뤘다. 포스코건설(40%·경북)은 한

국 규모다. 특히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이 처음으로 적용돼 벌써부터 누가 낙찰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지역의무공동도급 40%가 적용돼 3개 컨소시엄 모두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에 최소 지분인 40%를 할당했다.

한전은 오는 20일 나주 혁신도시 흥보관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8월 23일 기본설계와 기술제안서를 접수 받아 입찰을 마감한다. 한전은 기술제안점수 55%, 가격점수 45%의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가정폭력상담원”
■ 교육일시 : 2011년 7월 4일(월)~
※매주 월, 화, 목, 금 18:00 ~ (총100시간)
☎ 062)605-1112, 1063
[광신대학원 한국가족치료상담대학원]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원장이 있는 대학·원장은 주제 대회
광신 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청정고을 육성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장미 축제

2011곡성 The Gokseong Rose Festival

2011.6.10 금~6.12 일 (3일간) 섬진강 기차마을 장미공원

네비게이션 주소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770-5번지

“1004종, 3백만송이 장미공원 그 향기속으로”